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

원종숙**·류진아***

초 록

본 연구는 중년 기혼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고, 낙관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만46세~65세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0.0과 Process macro 4.1을 이용하여 총 396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이성적 대처가 완전매개를 보였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는 이성적 대처와 신앙에 의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셋째,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결과,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낙관성에 의한 이성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낙관성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에서는 낙관성이 +1SD일 때 유의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갈등상황에서 이성적 대처가 중년여성의 결혼만족도를 위한 중요한 대처방식이며, 낙관성을 통해 이성적 대처를 조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중년여성,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낙관성, 갈등대처방식, 조절된 매개효과

* 본 연구는 원종숙(2023)의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제1저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won9671@naver.com)
*** 교신저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교수(jina1031@ut.ac.kr)

I. 서론

한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세 이상이 전체인구의 22.5% 정도로 예측되고 있다(통계청, 2023). 인간의 생애 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중년기 이후 비중도 늘어났다. 정부는 50~69세를 ‘신중년기’라고 부르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용노동부, 2017). 중년기는 앞으로 다가올 노년기를 준비하며 새로운 전환을 모색하는 시기이므로 길어진 중년기를 어떻게 영위할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이다(신명희 외, 2019; 변외진·김춘경, 2006; Adams & Rau, 2011).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심리적 어려움을 겪은 후 많은 연구와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중년기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다. 중년기는 수많은 갈등으로 가득 찬 위기의 시기로 일컬어 지는데(Jung, 1972), 고령화, 손자녀 양육, 비대면 문화 등 빠르게 변화가는 사회 안에서 위기감이 더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중년층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특히 중년여성은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대체로 중년남성보다 위기감을 크게 느낀다(이우경, 2008). 중년여성의 위기감 요인으로는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어머니 역할의 감소, 배우자의 은퇴, 주부의 역할에서 얻지 못한 성취감 등의 심리적 허탈감과 폐경, 갱년기 증상 등의 신체적 어려움이 있다(김경숙, 2017). 또한, 자녀와 노부모 사이에 위치하여 두 세대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부담을 갖는 시기이다(Riley & Bowen, 2005).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높은 것을 고려했을 때(통계청, 2022a), 앞으로 다가올 초고령사회의 주체인 중년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 문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변외진·김춘경, 2006).

중년여성의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있어서 결혼만족도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결혼만족도에 대한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개인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에서 더 건강하고 행복하며 오래 산다(Robles et al., 2014; Vanassche, Swicegood, & Matthijs, 2013; Whisman, Gilmour, & Salinger, 2018). 높은 결혼만족도는 중년여성의 우울과 갱년기 증상을 감소시키며(차근영·김석선·길민지, 2017),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와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박희경·윤갑정, 2012).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40대 남성 중 81.3%, 여성 중 69.8%가 배우자와의 관계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50대 남성은 76.5%, 여성은 62.9%, 60세 이상 남성은 69.3%, 여성은 56.7%로 나타났다(통계청, 2022b). 이는 중년기에서 노년기로 갈수록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못함을 시사하며, 남편이 아내보다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

(정영숙·김선미, 2016; 최승미·김지연, 2016)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낮은 결혼만족도는 이혼을 예측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일관성 있게 확인되었다(Gottman & Levenson, 2000).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연구한 Tavakoli와 동료들(2017)은 원가족 요인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원가족(Family of origin)이란 한 개인이 태어나면서부터 성장해 오는 동안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으로 소속감을 가지는 가족으로 결혼한 성인 자녀의 경우에는 결혼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기 이전까지 사회적, 심리적, 정서적인 소속감을 가져온 가족을 말한다(이종원, 2002). 원가족에서의 건강한 경험은 친밀감, 배려심, 수용성과 긍정적 태도를 낳고 이는 적응적인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박미화·홍지영, 2019). 건강한 가족은 가족 구성원의 안녕과 사회의 건강함에 기여한다(박수진·이인수, 2015). 이러한 가족 건강성은 가족 내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며 가족 상호 간의 배려와 수용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최현미, 1997). Bowen(1978)은 세대 간 전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였고, Sabatelli와 Bartle-Haring(2003)은 자신의 원가족 경험에 대한 인식이 결혼적응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ewis와 Spanier(1979)은 원가족 부모의 결혼의 질이 자녀의 결혼생활 질과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를 시사하는데,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가 가능했던 가족 경험이 결혼 후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성인 남녀가 결혼생활을 유지하며 수많은 갈등 상황에 부딪히게 되는 것은 삶에 있어서 불가피한 일이다. 부부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관리하고 대처하는 대인 기술인 갈등대처능력(최규련, 1995) 즉,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해결하느냐가 갈등 상황 자체보다 중요하다(박미화·홍지영, 2019). 통계청(2021)에 따르면 부부의 성격 차이는 이혼 사유의 43%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이는 부부간 발생하는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시사한다. 선행연구(최규련, 1994, 황지인·함경애·천성문, 2014)에 따르면 갈등 상황에서 이성적 대처를 많이 할수록, 회피와 부정적 감정 행동 표출을 적게 할수록 결혼안정성과 만족도가 높았다. 긍정적 갈등해결전략이 결혼 만족과 적응을 상승시키며(김승희·김은영, 2014), 부부 갈등 상황에서 합리적 대처행동을 많이 할수록 부부친밀감과 결혼만족도가 높다는 연구들도 보고되었다(유희남·김영희, 2011; 주정란, 2022).

인간은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지만, 위기 속에서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긍정심리학자 Seligman(1991)은 개인의 특성, 긍정 정서를 함양하여 위기의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긍정심리학

에서는 자존감, 긍정적 인간관계, 낙관성 등이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는데(Diener et al., 1999), 낙관성은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 기대로(Scheier & Carver, 1985), 긍정적인 생각, 또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습관이다(김미향·이현진, 2019). 낙관성은 전반적인 삶뿐만 아니라 결혼생활 만족에도 영향을 미치며(Homaei et al., 2016), 이성관계 만족도, 갈등대처방식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노현숙, 2007).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낙관적이지 않을 때 자신의 배우자가 바꿀 수 없는 근본적 결함을 지녔다고 생각하며 더 감정적으로 대하게 되므로 결혼생활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낙관성이 효과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Homaei et al., 2016). Terveer와 Wood(2014)의 연구에서는 낙관성이 아내 본인과 배우자의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 낙관성이 중년 여성의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종합해보면, 중년여성의 개인적 안녕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결혼만족도를 꼽을 수 있으며, 이는 원가족에서의 건강한 경험과 관련이 있다. 원가족 내에서 습득된 상호작용방식은 결혼 후 가정에서 반복되어 나타나(Bowen, 1978) 부부의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가족에서 건강하지 못한 의사소통을 경험하면 적절한 갈등대처방식이 드러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가족 건강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오랜 시간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직접적 변화를 주기는 어렵다(주정란, 202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낙관성이 원가족으로부터 학습된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낙관성은 개입할 수 있는 변인이며,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진될 여지가 있다. 낙관성 개입인 BPS를 실시했을 때, 김경미(2019)는 성인 여성의 낙관성이 증가했다는 결과를 얻었고, 김경애(2019)는 우울한 대학생 집단의 낙관성이 증가했다고 하였다. 중년여성의 원가족 경험과 연결된 갈등대처와 결혼만족도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상황에서 낙관성에 대한 임상적 함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 낙관성이 이러한 매개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봄으로써 갈등대처방식과 낙관성의 상담 및 심리치료적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중년여성들을 대상으로 하여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어떤 유형의 갈등대처방식이 매개효과가 있는지 밝히고, 그 갈등대처방식 유형과 낙관성의 수준이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연구문제 1.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에 따른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갈등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에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에 따른 낙관성의 조절효과는 어떠한가?
- 연구문제 3.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중년여성과 결혼만족도

중년기에 느끼는 위기감은 개인마다 다르나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대체로 중년여성이 남성보다 위기감을 크게 느낀다(이우경, 2008). 자녀의 성장으로 인한 어머니 역할의 감소, 배우자의 은퇴, 주부의 역할에서 얻지 못한 성취감과 더불어 폐경, 갱년기 증상 등으로 위기감을 경험하기 때문이다(김경숙, 2017). 현대사회에서는 50~69세를 지칭하는 ‘신중년기’가 등장하는 등 수명의 연장에 따른 중년기 범위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보건복지부, 2020).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중년기의 연령을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국내 논문에서는 40~60세(정윤주, 2021), 40~65세(염선애·강이영, 2020), 45~65세(박정미 외, 2020), 50~60세(고경희·이정윤, 2018), 50~65세(김경숙, 2017) 등으로 보았다. 외국의 경우 40~60세(Polenick et al., 2017), 40~65세(Simon et al., 2008), 46~65세(Talbot et al., 2005) 등으로 보았다. 한편, 비혼과 만혼이 증가하면서 초산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다. 2022년 기준 초산 비율은 30~34세에 가장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2022c). 출산하고 10년 후 여성의 연령이 40~44세로 중년기에 해당하나, 아동기 자녀를 둔 어머니로서 자녀의 성장 및 독립과 관련한 공허감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양육자 역할의 축소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감에 비교적 가까운 46세~65세의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중년여성은 가족 내에서 역할변화를 맞이하게 된다(정윤주, 2021). 따라서 양육자의 역할보다 부부로서 얻는 안정감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가 행복한지 불행한지 구분할 수 있는 척도로는 결혼만족도를 꼽을 수 있다. 결혼만족(Marital Satisfaction)이란 결혼생활 전반에 대한 부부의

주관적 감정과 태도이다(김희진, 2004).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한 영역에서 존재한다. 최근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결혼만족도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아내의 해결중심사고가 아내의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남편과 아내의 결혼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며(조서진·주수산나, 2022), 원가족에서 경험된 부모의 부부 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홍지희·김보영, 2021). 결혼만족도는 가정의 유지뿐만 아니라 개인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김남진·김영희, 2010). 특히 중년여성은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남성에 비해 낮으므로(통계청, 2022b) 결혼만족도를 증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원가족 건강성, 갈등대처방식과 낙관성

원가족 건강성이란 원가족 안에서 자율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느끼고 가족 상호 간의 배려와 수용에 대해 지각하는 정도로서 원가족의 전반적인 건강성을 의미한다(최현미, 1997). 현대사회는 가족원의 구성과 형태가 다양해졌고 가족의 의미와 기능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유영주 외, 2013). 따라서 구조와 형태보다 정서적 유대감에 초점하여, 구성원 간 상호작용이 원만하고 적절한 유대관계를 이루며 개인의 자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지가 건강한 가족의 기준이 된다(유영주 외, 2013). 원가족에서의 경험은 부부적응과 갈등대처방식, 결혼만족도 등과 유의한 관련을 보이며 현재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유희남·김영희, 2011; 최규련, 1995). Bowen(1978)에 따르면 원가족 내에서 습득된 상호작용방식은 자녀가 결혼하여 꾸리는 새로운 가정에서 반복되어 나타난다. 이는 개인의 원가족 경험과 부부갈등에서의 대처방식이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갈등은 모든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특히 부부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여 개인적 특성이 다르기에 갈등이 불가피하다(유희남·김영희, 2011). 갈등은 정신적 부적응을 일으키고 관계에 불신을 유발하지만, 부부간의 갈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오히려 상호 이해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김우정, 2011). 그러므로 갈등 그 자체보다 부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방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대처행동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서연우·변상해, 2019). 갈등대처방식은 개인이 갈등에 직면했을 때 문제를 처리하고 적응해 나가는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박영화·고재홍, 2005). 갈등대처방식의 선행연구들을 보면 결혼만족도, 부부적응, 우울, 자아존중감, 자기분화 등의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가 연구되었다. 갈등대처방식 중 이성적 대처와 회피가 우울과 결혼불만족 사이에서 매개효과를 보였고(이경미 외, 2004), 높은 자아 존중감을 가질수록 갈등상황에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였다(이수희·정문자, 2005). 또한, 이성적 대처를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고 회피적 대처 방법을 사용할 경우 결혼만족도가 낮았다(황지인·함경애·천성문, 2014).

낙관성(Optimism)이란, 미래에 발생할 결과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일반적 기대를 말한다(Scheier & Carver, 1985). 비관적인 사람들은 오랫동안 나쁜 일들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자기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낙관적인 사람들은 똑같은 위기 상황에도 그저 일시적인 후퇴로 여기고 그 원인도 이번에만 국한된 것으로 보며 실패상황을 오히려 도전으로 여겨 더 열심히 노력한다(셀리그만, 2012). 국내에서 낙관성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낙관성은 삶의 만족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고(김은희·남승규, 2019; 노수림·양성빈, 2019), 낙관성이 높은 애정관계의 남녀는 갈등해결을 적절하게 하며, 관계에 만족도가 높았다(노현숙, 2007; 정민, 2006; Terveer & Wood, 2014).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중년여성의 낙관성이 결혼만족도와 관계에서 긍정적 영향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낙관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King(2001)의 미래의 최고로 가능한 자기(Best Possible Self), BPS를 들 수 있다. BPS는 자신의 미래 모습을 상상하며 글을 쓰는 방식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활용되어 효과가 입증되었다(김경미, 2019; 김경애, 2019). Seligman과 동료들(1995)은 펜실베이니아 예방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는데, 국내에서는 대상에 맞게 재구성하여 적용하고 있다(노영천·유순화; 2008; 정다정·김광수, 2017).

3. 각 변인간의 관계

케르와 보웬(2005)에 따르면 한 개인은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원가족 구성원들과의 감정 반응 강도 및 특징들을 배우고 이를 결혼 후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재현한다. 원가족에서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도 긍정적일 것이며 원가족에서 부정적 경험을 했다면 배우자와의 관계가 만족스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시사하며, 많은 선행연구에서 정적 영향의 결과가 입증되었다(김승희·김은영, 2014; 박미화·홍지영 2019; 박수진, 2015; 하상희, 2008; 황종귀, 2009; Dennison, Koerner & Segrin, 2014; Sabatelli & Bartle-Haring, 2003).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는 개인 내적 요인과 부부간 요인, 가족 관련 요인 등 다양하게 언급되는데, 그 중 대인간 요인과 의사소통 요인에서 가장 높은 상관이 있었다(김희진, 2004). 긍정적 의사소통은 기혼여성의 결혼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파괴적 갈등패턴은 결혼안정성을 저해한다(황종귀, 2009).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결혼만족도의 상관을 예측할 수 있다. 갈등대처방식 관련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다(문서현, 2022).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이성적 대처와 정적상관을, 회피와 감정 및 행동 표출과 부적상관을 보이는 일관적 결과가 나타났다(김승희·김은영, 2014; 최규련, 1995; 홍지희·김보영, 2021; 황지인·함경애·천성문, 2014).

한편, 낙관성은 가정에서 칭찬, 격려, 공감 등과 같은 긍정 정서를 많이 받았을 때와 가족탄력성이 높을 때 더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김보미, 2015) 낙관성이 원가족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예측할 수 있다. 낙관성은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데 노현숙(2007)은 낙관성이 갈등대처방식, 스트레스 대처,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낙관적인 청소년은 더 적응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대처하고(김보미, 2015; 서해인·신나나, 2016), 낙관성이 높은 미혼남녀는 타협적 갈등해결양식을 보였으며, 이는 곧 관계에서 더 많은 만족을 느끼는 데 영향을 미쳤다(노현숙, 2007; 정민, 2006).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결혼을 유지하고 있는 만46세~65세의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회수된 응답지는 총 396개였으며, 불성실한 응답자가 없었으므로 모두 사용하였다. 대상자의 연령을 살펴보면 만51~55세가 148명(37.4%)으로 가장 많았고, 만56~60세가 91명(23.0%), 만46세~50세가 84명(21.2%), 만61세~65세가 73명(18.4%)으로 비교적 균등한 비율로 나타났다. 직업에서는 전업주부가 178명(44.9%)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이 75명(18.9%)으로 그 뒤를 이었다. 종교에서는 무교가 159명(40.2%)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독교가 102명(25.8%), 불교가 71명(17.9%), 기타가 7명(1.8%)으로 나타났다. 결혼 기간은 20년 이상 30년 미만이 194명(49%)로 가장 많았고, 30년 이상 40년 미만이 125명(31.6%)으로 응답자 대부분의 결혼 유지 기

간이 20년 이상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원가족 건강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 외(2013)의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 (KFSS-Ⅱ)를 박수진(2015)이 과거형으로 변경한 것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유영주 외(2013)는 기존 검사도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문항의 개수와 내용을 수정하여 척도를 개발하였다. 한국형 가족건강성척도Ⅱ는 ‘가족탄력성’, ‘상호 존중과 수용’, ‘질적 유대감’, ‘경제적 안정과 협력’, ‘가족문화와 사회참여’ 5개 하위 요인으로 총 22문항이다. 5점 Likert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원가족이 건강했음을 의미한다. 유영주 외(2013)의 척도개발연구에서는 Cronbach’s α 계수가 .94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96으로 나타났다.

2) 결혼만족도 척도

Roach, Frazier & Bowden(1981)에 의해 개발되어 이인수·유영주(1986)가 우리나라에 맞게 변환한 Marital Satisfaction Scale(M.S.S)를 국성민(2008)이 22문항으로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결혼에 대한 불만족’, ‘애정적인 부부관계’, ‘결혼생활에 대한 적응’으로 총 22문항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에게 맞는 문항으로 일부를 수정하였다. 역채점 문항 처리를 했을 때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성민(2008)의 연구에서는 신뢰도가 전체 .94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3) 갈등대처방식 척도

McCubbin, Larson & Olson(1982)의 가족 대처전략 척도(F-Copes)와 Folkman & Lazarus(1980)의 척도, 송말희(1990) 등의 척도를 참고로 최규련(1994)이 작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최규련(1994)의 척도는 부인용과 남편용을 따로 사용하였는데 부인용의 척도는 총 25문항으로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표출’, ‘행동표출’, ‘회피’의 6개 하위영역으로 구분되며 신뢰도는 .70~.89로 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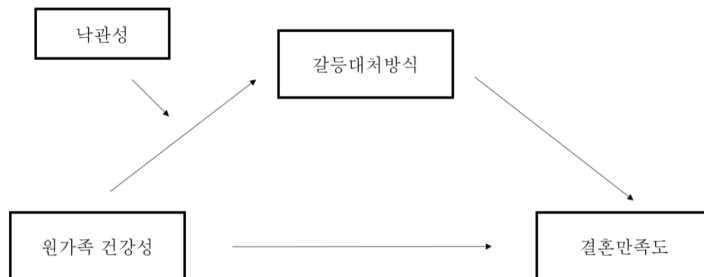
타났다. 후속 연구에서는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 ‘감정 및 행동 표출’, ‘회피’의 5개의 하위영역으로 수정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 중 부부적응과의 관계를 살폈던 박미화·홍지영(2019)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5점 Likert식 척도로 총 25문항이며, 본 연구의 Cronbach’s α 계수는 .68~.92로 나타났다.

4) 낙관성 척도

노영천(2011)이 개발한 한국인용 낙관성 척도 중 25문항으로 구성된 성향적 낙관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삶에 대한 긍정적 기대’, ‘삶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대처’, ‘관계에 대한 낙관성’, ‘성취에 대한 낙관성’의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의 일부를 중년여성에 맞게 수정하였고, 5점 Likert식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노영천(2011)의 연구는 Cronbach’s α 계수가 .92였으며, 본 연구는 .95로 나타났다.

3. 연구모형

본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연구모형

4. 자료분석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SPSS 20.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4.1을 이용하였다. 먼저, 빈도분석과 각 변인의 신뢰도 분석 후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고, 기술통계 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PROCESS macro model 4번과 model 1번을 이용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변인을 확인 후 model 7번을 이용해 조절된 매개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사용하였고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IV.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갈등대처방식, 낙관성의 기술통계 결과를 살펴 보고자 주요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산출하여 <표 1>에 제시 하였다. 결혼만족도의 점수 범위는 6점이며 이 외 모든 변인의 점수 범위는 5점이다. 변수들의 정규성 검증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산출한 결과, 각각의 절대값이 2와 7을 넘지 않아 정상분포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다($r=.20, p<.001$). 외부도움요청과 신앙에 의지, 이성적대처는 원가족 건강성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r=.17, p<.01$; $r=.14, p<.01$; $r=.23, p<.001$). 결혼만족도는 이성적 대처와 정적상관을, 회피와 부적상관을 보였다($r=.54, p<0.001$; $r=-.36, p<.001$). 또한, 낙관성은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r=.36, p<0.001$; $r=.41, p<.001$).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대처와 정적상관을($r=.11, p<.05$; $r=.12, p<.05$; $r=.47, p<.001$), 감정 및 행동 표출과 회피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r=-.14, p<.01$; $r=-.16, p<.01$).

<표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N=396

		M	SD	왜도	첨도
1. 원가족 건강성		3.29	0.76	-0.57	0.32
2. 결혼만족도		3.56	1.02	-0.02	-0.50
갈등 대처 방식	3. 외부도움요청	2.44	0.82	0.11	-0.55
	4. 신앙에 의지	2.14	1.14	0.60	-0.94
	5. 이성적 대처	3.67	0.61	-0.23	-0.05

		M	SD	왜도	첨도
	6. 감정 및 행동표출	2.39	0.83	0.39	-0.40
	7. 회피	2.63	0.68	-0.05	-0.41
	8. 낙관성	3.73	0.58	-0.31	0.31

〈표 2〉 주요 변인들의 상관분석

	1	2	3	4	5	6	7	8
1	1							
2	.20***	1						
3	.17**	.06	1					
4	.14**	-.03	.29***	1				
5	.23***	.54***	.14**	.10*	1			
6	-.04	-.08	.15**	.05	-.21***	1		
7	-0.1	-.36***	.19***	.10*	-.25***	.30***	1	
8	.36***	.41***	.11*	.12*	.47***	-.14**	-.16**	1

주: 1.원가족 건강성 2.결혼만족도 3.외부도움요청 4.신앙에 의지 5.이성적 대처 6.감정 및 행동표출
7.회피 8.낙관성

*** $p < .001$

2. 매개효과검증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model 4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외부도움요청과 신앙에 의지, 감정 및 행동 표출, 회피에서는 유의한 매개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원가족 건강성은 이성적 대처에 정적으로 유의하고($B=0.18$, $t=4.69$, $p<.001$), 이성적 대처는 결혼만족도에 정적영향을 미쳐($B=0.87$, $t=11.99$, $p<.001$)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표 4〉와 같이 매개효과가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유의했다($B=0.16$, $CI\{0.08\sim 0.25\}$). 한편, 직접효과는 유의하지 않아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 이성적 대처는 완전 매개효과로 볼 수 있다.

〈표 3〉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경로			<i>B</i>	<i>se</i>	<i>t</i>	<i>LLCI</i>	<i>ULCI</i>
원가족 건강성	→	외부도움요청	0.18	0.05	3.37 **	0.08	0.29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0.26	0.07	3.81 ***	0.12	0.39
외부도움요청	→	결혼만족도	0.03	0.06	-0.49	-0.09	0.15
원가족 건강성	→	신앙에 의지	0.20	0.08	2.72 **	0.06	0.35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0.27	0.07	4.07 ***	0.14	0.40
신앙에 의지	→	결혼만족도	-0.05	0.05	-1.11	-0.14	0.04
원가족 건강성	→	이성적 대처	0.18	0.04	4.69 ***	0.12	0.26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0.10	0.06	1.74	-0.10	0.13
이성적 대처	→	결혼만족도	0.87	0.07	11.99 ***	0.73	1.02
원가족 건강성	→	감정 및 행동표출	-0.04	0.06	-0.70	-0.15	0.07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0.26	0.07	3.90 ***	0.13	0.39
감정 및 행동표출	→	결혼만족도	-0.09	0.06	-1.56	-0.21	0.03
원가족 건강성	→	회피	-0.00	0.05	-0.08	-0.09	0.09
원가족 건강성	→	결혼만족도	0.26	0.06	4.21 ***	0.14	0.38
회피	→	결혼만족도	-0.53	0.07	-7.71 ***	-0.66	-0.39

* $p<.05$, ** $p<.01$, *** $p<.001$.

〈표 4〉 이성적 대처의 매개효과 검증을 위한 부트스트래핑 결과

효과	<i>Effect</i>	<i>SE</i>	<i>LLCI</i>	<i>ULCI</i>
총효과	0.26	0.07	0.13	0.39
직접효과	0.10	0.06	-0.01	0.22
간접효과	0.16	0.04	0.08	0.25

3. 조절효과검증

원가족 건강성과 갈등대처방식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model 1을 이용해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신앙에 의지와 이성적 대처에서 95% 신뢰구간의 상한값과 하한값이 0을 포함하지 않았으며($B=-0.24$, $t=-2.30$, $p<.05$, $CI\{-0.45\sim-0.04\}$; $B=0.20$, $t=4.03$, $p<.001$, $CI\{0.10\sim0.30\}$), R^2 의 변화량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Delta R^2=0.01^*$, $\Delta R^2=0.03^*$). 따라서 신앙에 의지와 이성적 대처에서 조절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원가족 건강성과 갈등대처방식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종속변인	구분	<i>B</i>	<i>se</i>	<i>t</i>	<i>LLCI</i>	<i>ULCI</i>
외부도움 요청	원가족 건강성	0.54	0.29	1.87	-0.02	1.11
	낙관성	0.39	0.24	1.58	-0.09	0.87
	상호작용항	-0.10	0.08	-1.34	-0.25	0.05
	상호작용항에 따른 R^2 변화량			$F=4.71^{**}$	$R^2=0.36$	$\Delta R^2=0.00$
신앙에 의지	원가족 건강성	1.06	0.40	2.64 ^{**}	0.27	1.84
	낙관성	0.90	0.34	2.68 ^{**}	0.24	1.57
	상호작용항	-0.24	0.11	-2.30 [*]	-0.45	-0.04
	상호작용항에 따른 R^2 변화량			$F=5.12^{**}$	$R^2=0.04$	$\Delta R^2=0.01^*$
이성적 대처	원가족 건강성	-0.69	0.19	-3.65 ^{***}	-1.06	0.32
	낙관성	0.15	0.16	0.92	-0.46	0.17
	상호작용항	0.20	0.05	4.03 ^{***}	0.10	0.30
	상호작용항에 따른 R^2 변화량			$F=43.86^{***}$	$R^2=0.25$	$\Delta R^2=0.03^{***}$
감정 및 행동 표출	원가족 건강성	-0.13	0.29	-0.44	-0.71	0.45
	낙관성	-0.34	0.25	-1.37	-0.82	-0.15
	상호작용항	0.04	0.08	0.52	-0.11	0.19
	상호작용항에 따른 R^2 변화량			$F=2.87^*$	$R^2=0.02$	$\Delta R^2=0.00$
회피	원가족 건강성	0.22	0.24	0.90	-0.26	0.69
	낙관성	-0.09	0.20	-0.42	-0.49	0.31
	상호작용항	-0.04	0.06	-0.68	-0.17	0.08
	상호작용항에 따른 R^2 변화량			$F=4.06^{**}$	$R^2=0.03$	$\Delta R^2=0.00$

주: 상호작용항 : 원가족 건강성 × 낙관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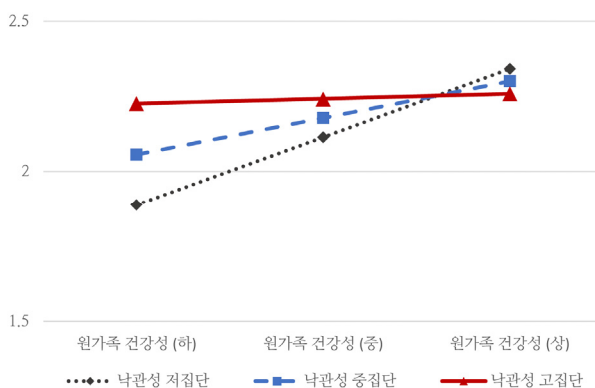
변인의 구체적인 조절 효과를 탐색하기 위해 특정 값 선택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낙관성의 수준에 따라 원가족 건강성이 신앙에 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여 〈표 6〉, [그림 2]에 제시하였다. 조건부 효과를 탐색한 결과 평균일 경우($B=0.16$, $t=2.01$, $p<.05$)와 -1SD일 경우($B=0.30$, $t=2.97$, $p<.01$)에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CI\{0.10\sim 0.50\}$, $CI\{0.00\sim 0.32\}$)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낙관성이 높은 집단은 원가족 건강성에 따라서 신앙에 의지하는 정도가 변화하지 않으며, 낙관성이 낮은 집단은 원가족 건강성이 향상됨에 따라 더 신앙에 의지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는 〈표 7〉, [그림 3]에 제시하였다. 낙관성 수준이 +1SD일 경우($B=0.17$, $t=3.61$, $p<.001$)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CI\{0.08\sim 0.26\}$) 낙관성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그림 3]의 그래프에서는 낙관성이 높은 집단의 기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원가족 건강성과 신앙에 의지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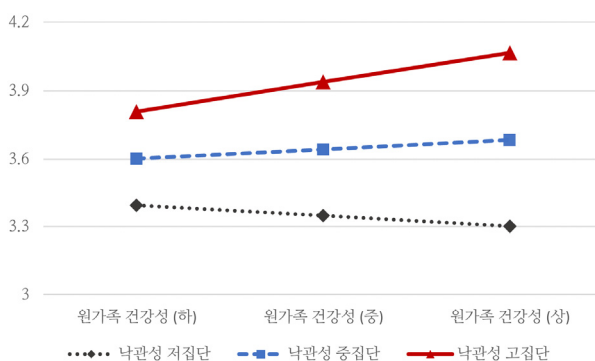
	낙관성	<i>B</i>	<i>se</i>	<i>t</i>	<i>LLCI</i>	<i>ULCI</i>
-1SD	3.15	0.30	0.10	2.97 **	0.10	0.50
M	3.73	0.16	0.08	2.01 *	0.00	0.32
+1SD	4.31	0.02	0.10	0.22	-0.20	0.28

〈표 7〉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적 대처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낙관성	<i>B</i>	<i>se</i>	<i>t</i>	<i>LLCI</i>	<i>ULCI</i>
-1SD	3.15	-0.06	0.05	-1.28	-0.16	0.03
M	3.73	0.05	0.04	1.44	-0.02	0.13
+1SD	4.31	0.17	0.05	3.61 ***	0.08	0.26



[그림 2] 원가족 건강성과 신앙에 의지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그림 3] 원가족 건강성과 이성적 대처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조절효과

4.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 중 이성적 대처에서 매개효과와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이성적 대처가 낙관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를 보이는지 model 7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표 8>과 같이 전체 모형의 조절된 매개지수는 .17로,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이 포함되지 않아(CI{.05~.29})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낙관성의 수준에 따른 간접효과 검증 결과 <표 9>와 같이 낙관성이 +1SD인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15$, CI{0.06~0.25}). 따라서 낙관성이 +1SD 수준 이상일 경우에 원가족 건강성에서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에서 이성적 대처의 간접효과가 조절됨을 의미한다.

〈표 8〉 연구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

	<i>Index</i>	<i>Boot SE</i>	<i>LLCI</i>	<i>ULCI</i>
낙관성	0.17	0.06	0.05	0.29

〈표 9〉 낙관성의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

낙관성	<i>B</i>	<i>se</i>	<i>LLCI</i>	<i>ULCI</i>
-1SD	-.053	0.06	-0.16	0.07
M	0.05	0.04	-0.03	0.13
+1SD	0.15	0.05	0.06	0.25

V. 논의

본 연구는 중년여성의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낙관성에 의한 갈등대처방식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가족 건강성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신진호, 2020; 하상희, 2008)의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원가족 건강성은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와 정적상관을 보여 선행연구(서연우·변상해, 2019)의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결혼만족도는 이성적 대처와 정

적 상관을 보이고 회피와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부부 적응 및 결혼만족도가 이성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이고 회피와 감정 및 행동 표출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는 연구(박미화·홍지영, 2019; 주정란, 2022; 홍지희·김보영, 2021)와 일부 일치한다. 낙관성은 모든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가족 건강성, 결혼만족도, 외부도움요청, 신앙에 의지, 이성적 대처와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감정 및 행동 표출과 회피와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가족탄력성과 낙관성이 정적으로 유의하며(김보미, 2015), 낙관성과 협력적인 갈등대처양식이 정적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노현숙, 2007)와 맥을 같이한다. 둘째,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는 이성적 대처에서만 유의하였다. 이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에서 이성적 대처가 매개효과를 보였다는 선행연구(박미화·홍지영, 2019; 홍지희·김보영, 2021; 황지인·함경애·천성문, 2014)를 일부 지지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성적 대처가 완전 매개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때 이성적 대처방식의 중요도가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원가족 건강성이 갈등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낙관성의 조절효과는 신앙에 의지와 이성적 대처에서 유의하였다. 먼저 신앙에 의지를 탐색한 결과 낙관성의 수준이 평균일 때와 낮을 때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중년기 여성의 신앙 및 종교 활동의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한국고용정보원(2021)의 중고령 연령을 대상으로 한 고령화 연구패널조사에 의하면 종교 활동을 하는 인구에서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중년여성은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으며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데, 불안, 분노 등의 감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종교를 선택하기도 한다(박성자, 1993). 낙관성이 높은 중년여성과 낮은 중년여성은 신앙에 의지하는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낙관성이 높은 사람들은 위기에서 빠르게 행복으로 전환하는 반면에 낙관성이 낮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일이 계속될 거라고 믿는다(Carver, Scheier, & Segerstrom, 2010). 따라서 낙관성이 낮은 중년여성은 부정적인 일이 계속될 거라는 믿음으로 인해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을 신앙에 의지하여 대처하려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적 대처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낙관성이 높은 집단에서만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낙관성이 높은 집단은 원가족 건강성의 증가에 따라 이성적 대처를 더 많이 사용하고 낙관성이 평균일 때와 낮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낙관성에 의한 이성적 대처의 조절된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낙관성의 수준이 높을수록 원가족 건강성이 이성적 대처를 경유

하여 결혼만족도에 가는 경로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조건부 값에 따른 간접효과에서는 낙관성이 높은 집단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해 낙관성이 일정 수준 이상일 때만 이성적 대처를 통한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낙관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에 비해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 사이에서 이성적 대처의 매개효과가 더 높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통해 원가족 건강성이 낮아 이성적 대처를 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높은 낙관성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결혼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Carver과 Scheier, Segerstrom(2010)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가 대처하는 행동방식에서 아주 광범위하게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대처의 개념은 관련된 문제영역에서 해결을 위한 것뿐 아니라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낙관적인 개인은 문제나 역경이 닥쳤을 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예방적 또는 사전 대처(Aspinwall & Taylor, 1997)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 시킨다. 아마도 낙관론자들은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반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삶을 주도하고 자신의 성장, 발달을 위한 안전한 삶의 토대를 구축하여 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긍정심리학자들은 행복, 낙관성 등의 요소들이 연습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방안을 제시하였다(Lyubomirsky, heldon, & Schkade, 2005). 중년여성 내담자의 낙관성 회복과 향상을 위해서 자신의 감정적 균형을 유지하며 이성적 대처행동을 탐색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자기통제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 회피하거나 이탈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조치하는데 대한 개인의 역량을 연습을 통해 강화하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한편, 선행연구에 등장하는 개념은 본질적으로 중복되는 개념임에도 연구자의 관점이나 분야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Bowen(1976)은 결혼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자아분화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자아분화가 잘 이루어진 사람은 객관적이고 자제력 있는 모습을 보인다(이소미·고영진, 2009). 이런 점에서 분화된 개인의 행동 방식이 이성적 대처방식과 유사하게 보인다. 선행연구에서는 개입이 어려운 원가족 건강성 및 자아분화와 같은 요인보다 비교적 개입이 용이하다고 알려진 갈등대처방식을 초점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성적 대처를 촉진한다는 것이 자아분화의 개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이성적 대처를 단순히 행동 차원에서 교육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낙관성 또한 가정에서 긍정 정서를 많이 받았을 때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고연경, 2011), 상당 부분 원가족 관계 경험에 뿌리를 둔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낙관성과 이성적 대처방식을 원가족 건강성과 분리되어 다루기보다 가족관련 프로그램 등 원가족 건강성과 관련성 속에서 설계된다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낙관주의 수준은 특성과 유사하여 시간이 지나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변화는 확실히 가능하지만(Segerstrom & Nes, 2006), 개인에게 합리적으로 얼마나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얼마나 영구적인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Carver, Scheier, & Segerstrom, 2010). 따라서 중년여성의 낙관성 유지와 향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년기 이후의 자아 인식에 대한 Turner와 Hooker(2022)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자기효능감 향상은 노화로 인한 자아에 대한 부정적인 두려움을 없애고 더 높은 낙관주의, 희망적 자아를 형성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자아 인식과 관련이 있었다. 중년기에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자기인식이 자기효능감을 향상시켜서 낙관적이고 희망적인 자아를 형성한다. 낙관성을 높이는 것은 중년인 현재뿐만 아니라 노년기 삶의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 높은 낙관성은 나이들을 과도하게 인식하여 현재와 미래의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줄일 수 있다(Cheng, McMaughan, & Smith, 2022).

국내에서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낙관성 증진 상담기법과 프로그램 연구는 부족하다. 유사한 연구를 살펴보면, 노영천·유순화(2009)는 펜실베이니아 예방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초등자녀를 둔 어머니에게 개입하였고, 윤성민·신희천(2012a)은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긍정심리활동에서 낙관성 훈련을 포함한 프로그램을 개입하였다. 두 연구 모두 낙관성이 증진한 결과를 보여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낙관성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추측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조화를 중요시하는 집단주의 문화권으로, 우리나라의 중년여성들은 개인의 발전이나 욕구 만족, 성취보다 가족 전체의 안녕을 위해 희생하는 경우가 많다(윤성민·신희천, 2012b). 따라서 중년여성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낙관성이 고통의 억압을 통해 상황을 좋게 해석하거나 회피하는 형태는 아닌지 깊은 탐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향후 이러한 중년여성의 특성을 고려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전국에 보급하여 가족센터 등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중년여성의 낙관성을 높여 결과적으로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중년여성이 맞이할 노년기의 안녕과 더불어 향후 자녀 세대가 꾸릴 새로운 가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 이는 큰 맥락에서 원가족 건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이며, 건강한 가정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및 논의를 바탕으로 한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의 원가족건강성과 결혼만족도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별로 분석하여 어떤 대처방식이 유의한지 검증하였다.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검증에서 갈등대처방식의 하위요인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 특히 이성적 대처는 완전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낙관성에 의해 조절된 매개효과에서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결혼만족도를 높이는 핵심적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둘째, 긍정심리학의 기초 개념인 낙관성을 조절변인으로 하여 모형을 검증하였다. 결혼만족도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의사소통, 갈등대처양식, 부부친밀감, 자아분화, 자기자비, 자아존중감 등을 매개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족 건강성과 결혼만족도의 관계에서 갈등대처방식의 영향을 알아보는 것과 동시에 개인 내적 요소인 낙관성을 투입하여 조절되는 정도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원가족 건강성에서 이성적 대처를 경유하여 결혼만족도로 가는 경로가 낙관성에 의해 조절됨을 증명하였다. 셋째, 국내 선행연구에서 낙관성은 아동과 청소년, 대학생, 또는 특정 직업군 대상으로 주로 연구되었으며 중년기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대상을 중년기 여성으로 설정한 데 의의가 있다. 넷째, 중년여성의 낙관성과 갈등대처방식의 교육 및 상담적 개입에 대한 중요성을 확인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 원가족 건강성은 결혼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나 원가족 건강성을 변화시키긴 쉽지 않다. 본 연구는 이성적 대처가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으며, 결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낙관성과 이성적 대처를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중년여성이 참여하는 개인상담 및 부부상담의 임상과 집단상담 및 심리교육의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년여성만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결혼만족도에 대한 배우자와 주고받는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결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에 집중하였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부부를 한 쌍으로 개인의 심리적 요인인지 부부 사이에서 주고받는 요인인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자녀 유무, 자녀 수, 결혼 기간, 경제활동 유무, 지역, 계층 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지 않았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구분하여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결혼 기간이 10년 미만이고 자녀가 없는 여성의 결혼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했을 때(손연정·유문숙, 2008), 같은 연령대라도 자녀의 유무와 결혼 기간에 따라 결혼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이 시사된다.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사회에서 정체성을 가졌을 때, 결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나(김미령, 2011), 여성의 경제활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 현대사회를 반영해 다양한 요인을 구분하여 연구한다면 의의가 있겠다. 셋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을 통해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후속 연구에서는 인터뷰나 관찰법과 같은 방법을 통해 심층적 탐색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고경희·이정운(2018). “중년기 성인의 적응유연성 보호요인에 관한 개념도: 남녀 차이를 중심으로”. *상담학연구*. 제19권 제2호. 279-301.
- 고연경(2011). 아버지의 성향적 낙관성이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영향. 용문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용노동부(2017). 신중년 인생 3모작 기반구축 계획. 고용노동부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https://bit.ly/48HfY8J>에서 2024.3.9.인출
- 국성민(2008). 부모의 양육태도 및 결혼만족도가 자녀의 성격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숙(2017). 중년기 여성의 부부갈등과 부부갈등대처방식이 결혼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경미(2019). “낙관성 개입이 낙관성, 삶의 의미 및 일반건강에 미치는 효과: 성인여성을 대상으로”.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제9권 제11호. 821-830.
- 김경애(2019). “낙관성 개입과 실행의도 형성이 우울한 대학생의 우울, 낙관성, 주관적 안녕감,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스트레스연구*. 제27권 제1호. 64-73
- 김남진·김영희(2010). “기혼남녀의 자아분화에 따른 부부갈등과 결혼만족도 및 안정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제15권 제1호. 197-225.
- 김미령(2011). “여성의 취업유무에 따른 결혼만족도 차이 및 영향요인 비교”. *여성연구*. 제81권. 69-101.
- 김미향·이현진(2019). “어머니의 낙관성 및 수용적 양육 태도가 유아의 자기조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제19권 제2호. 117-128.
- 김보미(2015). 가족탄력성이 청소년의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영향: 낙관성을 매개변인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승희·김은영(2014). “신학생 부부의 원가족 건강성 지각과 갈등대처행동이 결혼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제25권 제4호. 79-102.
- 김우정(2011). 기혼자들의 자기애성향, 공감, 자존감 및 갈등대처방식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은희·남승규(2019). “낙관성과 신뢰가 삶의 의미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제9권 제7호. 615-624.
- 김희진(2004). “한국 부부의 결혼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상담*

- 학연구. 제5권 제3호. 839-853.
- 노수림·양성빈(2019). “대학생의 낙관성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제26권 제5호. 513-539.
- 노영천·유순화(2009). “초등자녀의 어머니를 위한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어머니와 자녀의 낙관성에 미치는 효과”. 상담학연구. 제10권 제4호. 2055-2073.
- 노영천(2011). 한국인용 낙관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노현숙(2007). “낙관성과 스트레스 지각이 갈등해결양식 및 이성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생생활연구. 제10권. 1-15.
- 문서현(2022). “갈등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동향 분석” 상담교육연구. 제5권 제1호. 18-33.
- 박미화·홍지영(2019).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건강성과 부부적응의 관계에서 자기자비와 갈등대처방식의 순차적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제19권 제14호. 659-689.
- 박성자(1993). 한국교회 여성의 신앙형태에 대한 여성신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수진(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상명대학교 복지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진·이인수(2015). “부부의 원가족건강성이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제23권 제2호. 381-400.
- 박영화·고재홍(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19권 제1호, 71-100.
- 박정미·천성문·박삼순·황선민(2020). “중년기 삶의 의미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재활심리연구. 제27권 제1호. 89-113
- 박희경·윤갑정(2012).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모-자녀관계와 결혼만족도가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3권 제2호. 243-261.
- 변외진·김춘경(2006). “중년여성의 우울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4권 제7호. 125-139.
- 보건복지부(2020).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 세종: 보건복지부
- 서연우·변상해(2019). “원가족 건강성이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부부갈등 대처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 중심 교과 교육 연구. 제19권 제20호.

647-667.

- 서해인·신나나(2016).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남녀 청소년의 낙관성이 갈등대처 방식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제37권 제5호. 65-82.
- 셀리그만(2012). *마틴셀리그만의 낙관성 학습*. 우문식, 최호영(역). 서울: 물푸레.
- 손연정·유문숙(2008). “기혼 직장여성의 결혼만족도 관련요인”. *한국모자보건학회지*. 제12권 제2호. 143-154.
- 송말희(1990). “기혼남·녀의 부부간 갈등정도와 대응행동에 관한 연구”. *가정과 삶의질연구*. 제8권 제2호. 31-47.
- 신건호(2020). “아버지의 원가족 건강성이 양육참여에 미치는 영향: 결혼만족의 매개효과와 자녀가치의 조절효과”. *인문사회* 21. 제11권 제5호. 589-604.
- 신명희·서은희·송수지·김은경·원영실·노원경·김정민·강소연·임호용(2019).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염선애·강이영(2020). “중년기 대인관계 능력이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진정성의 매개효과와 남녀 집단 간 차이”. *인문사회* 21. 제11권 제2호. 317-330.
- 유영주·이인수·김순기·최희진(2013). “한국형 가족 건강성척도Ⅱ (KFSS-Ⅱ) 개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31권 제4호. 113-129.
- 유희남·김영희(2011). “원가족 분화경험이 기혼여성의 자아분화와 부부갈등 대처 행동 및 부부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과 가족치료*. 제19권 제3호. 141-158.
- 윤성민·신희천(2012a). “행복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활동들의 효과비교: 개인-초점적 활동과 관계-초점적 활동”.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121-148.
- 윤성민·신희천(2012b). “한국 수도권 중년여성들의 성격적 강점과 행복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24권 제1호. 27-49.
- 이경미·최윤경·강이현·이민수(2004). “지역사회 기혼 여성의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가족내 관계 만족 변인 및 갈등대처 방식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제43권 제2호. 229-236.
- 이소미·고영건(2009). “자아분화가 결혼적응에 미치는 효과: 갈등대처행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일반*. 제28권 제3호. 643-658.
- 이수희·정문자(2005). “대학생의 원가족 분화수준과 자아존중감이 이성파트너와의 갈등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상담연구*. 제13권 제2호. 33-45.
- 이우경(2008). *중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마음챙김, 자기-연애, 정서적 안녕감 간*

- 의 관계 구조 분석과 마음 챙김 증진 프로그램의 효과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인수·유영주(1986). “결혼만족도 척도의 타당화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4권 제1호. 1-14.
- 이종원(2002). 부부 갈등과 관련된 원가족 변인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다정·김광수(2017). “교과 연계 낙관성 증진 프로그램이 아동의 낙관성과 학습동기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상담연구. 제25권 제2호. 65-91.
- 정민(2006). 이성교제 시 낙관성과 자기효능감이 갈등대처방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정영숙·김선미(2016). “감사성향, 배우자에 대한 감사표현과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 행복감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3호. 511-536.
- 정윤주(2021). “중년기 여성의 위기감이 심리사회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정서·행동장애연구. 제37권 제3호. 93-110.
- 조서진·주수산나(2022). “중년부부의 해결중심사고가 문제해결능력을 매개로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가족과 가족치료. 제30권 제3호. 357-379.
- 주정란(2022). 기혼 남녀의 원가족 건강성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통합치료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근영·김석선·길민지(2017). “중년기 부부의 스트레스와 결혼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 효과”.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 126-149.
- 최규련(1994). “가족체계 유형과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제12권 제2호. 140-152.
- 최규련(1995). “가족체계의 기능성, 부부간 갈등 및 대처방안과 부부의 심리적 적응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제6호. 99-113.
- 최승미·김지연(2016). “중년기 기혼 남녀의 스트레스와 정신적 웰빙과의 관계에서 결혼만족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제21권 제4호. 683-702.
- 최현미(1997). “원가족 접근방법의 유용성과 활용방안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제1권 제1호. 205-237.
- 케르, 보웬(2005). 보웬의 가족치료이론. 남순현 외(역). 서울: 학지사.
- 통계청(2021). 이혼·별거 사유. <https://bit.ly/42lJO0j> 에서 2024.01.29. 인출
- 통계청(2022a). 사망자수, 조사망률, 기대수명. <http://bit.ly/3UghRFy> 에서 2024.01.27. 인출

- 통계청(2022b). 가족관계 만족도, 배우자와의 관계. <https://bit.ly/42femRM> 에서 2024.01.27. 인출
- 통계청(2022c). 모의 연령별 출산율. <https://bit.ly/4a03YA0> 에서 2024.3.9. 인출
- 통계청(2023). 전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http://bit.ly/47MhSV2> 에서 2024.01.27. 인출.
- 하상희(2008). “기혼남녀가 지각한 원가족 경험이 결혼만족도 및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과삶의질연구*. 제26권 제2호. 129-141.
- 한국고용정보원(2021). 2020고령화연구패널(KLoSA) 기초분석보고서. 음성: 한국고용정보원.
- 홍지희·김보영(2021). “부모의 부부갈등이 중년기 부부의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자비와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제33권 제3호. 1349-1374.
- 황종귀(2009). “기혼남녀의 결혼만족도와 안정성에 관련된 요인”. *한국생활과학회지*. 제18권 제4호. 825-840.
- 황지인·함경애·천성문(2014). “부모의 부부갈등과 결혼안정성과의 관계에서 부부갈등대처방식의 매개효과”. *인문학논총*. 제36권. 381-405.
- Adams, G. A., & Rau, B. L. (2011). Putting off tomorrow to do what you want today: planning for retirement. *American Psychologist*, 66(3), 180.
- Aspinwall, L. G., & Taylor, S. E. (1997). A stitch in time: Self-regulation and proactive coping. *Psychological Bulletin*, 121(3), 41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Family therapy: Theory and practice*, 4(1), 2-90
- Bowen, M. (1978). *Family therapy in clinical practice*. New York: Jason Aronson.
- Carver, C. S., Scheier, M. F., & Segerstrom, S. C. (2010). Optimism.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79-889.
- Cheng, K. J. G., McMaughan, D. J., & Smith, M. L. (2022). The role of optimis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activity limitations and life satisfaction among middle-aged and older adults in the united states: A growth curve model of changes over time.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41(4), 993-1001.
- Dennison, R. P., Koerner, S. S., & Segrin, C. (2014). A dyadic

- examination of family-of-origin influence on newlyweds'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8(3), 429.
- Diener, E., Suh, E., Lucas, R. E., & Smith, H.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 Folkman, S., & Lazarus, R. S. (1980). An analysis of coping in a middle-aged community sampl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19-239.
- Gottman, J. M., & Levenson, R. W. (2000). The timing of divorce: Predicting when a couple will divorce over a 14 year period.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2(3), 737-745.
- Homaei, R., Bozorgi, Z. D., Ghahfarokhi, M. S. M., & Hosseinpour, S. (2016). Relationship between optimism, religiosity and self-Esteem with marital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International Education Studies*, 9(6), 53-61.
- Jung, C. G. (1972). *The collected works of C. G. Jung, Vol. 7: Two essays on analytical psycholog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ing, L. A. (2001). The health benefits of writing about life goal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7(7), 798-807.
- Lewis, R. A., & Spanier, G. B. (1979). Theorizing about the quality and stability of marriage.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Research-based Theories/edited by Wesley R. Burr...[et al.]*.
- Lyubomirsky, S., Heldon, K. M., & Schkade, D. (2005). Pursuing happiness: The architecture of sustainable change.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2), 111-131.
- McCubbin, H., Larson, A., & Olson, D. (1982). *F-COPES: Family coping strategies*. Family inventories. St. Paul: University of Minnesota.
- Polenick, C. A., Seidel, A. J., Birditt, K. S., Zarit, S. H., & Fingerman, K. L. (2017). Filial obligation and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couples. *The Gerontologist*, 57(3), 417-428.
- Riley, L. D., & Bowen, C. P. (2005). The sandwich generation: Challenges and coping strategies of multigenerational families.

- The Family Journal: Counseling and Therapy for Couples and Families*, 13(1), 52-58
- Roach, A. J., Frazier, L. P., & Bowden, S. R. (1981). The marital satisfaction scale: Development of a measure for intervention resear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7-546.
- Robles T. F., Slatcher R. B., Trombello J. M., & McGinn M. M. (2014). Marital quality and health: A meta-analytic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140(1), 140-187
- Sabatelli, R. M., & Bartle-Haring, S. (2003). Family-of-origin experiences and adjustment in married coupl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1), 159-169.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3), 219-24
- Segerstrom, S. C., & Nes, L. S. (2006). When goals conflict but people prosper: The case of dispositional optimism.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0(5), 675-693.
- Seligman, M. E.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Knopf.
- Seligman, M. E. P., Reivich, K., Jaycox, L., & Gillham, J. (1995). *The optimistic child*. Boston: Houghton Mifflin.
- Simon, G. E., Ludman, E. J., Linde, J. A., Operskalski, B. H., Ichikawa, L., Rohde, P., Finch E. A. & Jeffery, R. W. (2008). Association between obesity and depression in middle-aged women. *General hospital psychiatry*, 30(1), 32-39.
- Talbot, L. A., Musiol, R. J., Witham, E. K., & Metter, E. J. (2005). Falls in young, middle-aged and older community dwelling adults: perceived cause, environmental factors and injury. *BMC public health*, 5(1), 1-9.
- Tavakol, Z., Nasrabadi, A. N., Moghadam, Z. B., Salehiniya, H., & Rezaei, E. (2017). A review of the factors associated with marital satisfaction. *Galen Medical Journal*, 6(3), 197-207.
- Terveer, A. M., & Wood, N. D. (2014). Dispositional optimism and marital adjustment. *Contemporary Family Therapy*, 36, 351-362.

- Turner, S. G., & Hooker, K. (2022). Are thoughts about the future associated with perceptions in the present?: Optimism, possible selves, and self-perceptions of aging.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94(2), 123-137.
- Vanassche, S., Swicegood, G., & Matthijs, K. (2013). Marriage and children as a key to happiness? Cross-nation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marital status and children on well-being.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14(2), 501-524.
- Whisman, M. A., Gilmour, A. L., & Salinger, J. M. (2018). Marital satisfaction and mortality in the United States adult population. *Health Psychology*, 37(11), 1041-1044.

Abstract

The influence of family-of-origin health on marital satisfaction in middle-aged women: a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coping style by optimism

JongSuk Won*·Jin-A Ryu**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conflict coping style on how middle-aged women's family-of-origin health affects marital satisfaction and determined the mediating effect moderated by optimism.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married women aged 46-65, and data from 396 participants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and Process Macro 4.1.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mong the subfactors of conflict coping styles, the rational coping style successfully mediated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satisfaction. Second, optimism had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s on rational coping style and reliance on faith in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amily-of-origin health and conflict coping styles.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the mediating effect of rational coping moderated by optimism was significant between the family-of-origin health and marital satisfaction.

Keywords : middle-aged women, family-of-origin health, marital satisfaction, optimism, conflict coping style

* First Author: Master degre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 Corresponding Author: professor,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